

한국 전통문양의 그래픽 이미지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raphic Image Appl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문 정 민

조선대학교

문 정 민
Moon, Jeong Mi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New York, Parsons School of Design
Architectural Lighting Design (MFA)
IES, IALD 정회원
광주 영상예술센터 자문위원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전임강사

Contents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본론

1. 전통문양에 관한 고찰

1). 문양의 상징성

2). 문양의 유형

(1) 토기의 문양

(2) 토기의 형태

2. 문양의 활용사례 (국외)

1). 벽의 문양

2). 바닥의 문양

3). 천장의 문양

4). 난간의 문양

3. 문양의 적용 (국내)

1). 슈퍼그래픽

2). 환경조각

3). 가로장치물

III.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전통이란 어떤 규범이나 행위, 가치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틀이며, 미래에로의 새로움을 예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의 전통적 표현의 의미는 과거로부터 전래되어온 자신의 것인 동시에 새로운 형태창출을 위한 기초이다. 모든 시각적 조형예술에 있어서의 전통성 표현은 그 지역이나 나라에서 이해하고 그 기본 조건 위에 지금의 사회적 상황이 요구하는 시대적 감각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함에 그 표현의 원리를 알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통성 표현과 그 조형적 특성의 그래픽적 이미지 적용을 위하여 그 과정과 발전 단계를 거리 장치물 그래픽 이미지에 표현될 수 있는 전통 문양을 중심으로 조사, 관찰,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로 이론적 배경으로써 전통 문양의 유형과 사례들을 고대 토기를 중심으로 문헌을 통하여 살펴 보았고, 기존에 발표된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된 예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적용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존 전통 토기 문양에서 슈퍼 그래픽, 조가, 가로장치물에 어떠한 과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전통문양요소, 이미지요소, 형태요소, 문양요소의 순으로 그래픽적 이미지 적용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적용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Abstract

Tradition as social and cultural customary way of thinking or behaving that has been passed down in this way and continuously followed for a long time and a statement expressing our beliefs about what will happen in future. And it is an uninterrupted connection with the passed and a prediction and something new that we can look for.

As a result, the expression meaning of the tradition from each country is the base of creative self-expression and, simultaneously, a work creating newformations.

The traditional expression is all 'formative-art must it a principle to understand the tradition from each region and country and introduce to this field the contemporary senses in accord with demand of social condition and situation.

This study, therefore, is trying to observe, and analyze the development and its stages of patterns expressed in building, environmental graphics, street furnitures through the contemporary application to tradition.

This study, first, will analyze types and cases of patterns as a theocratical background, what we noticed is an earth vessel of Gaya and Shilla and this is investigation wall, ceilings, floor, and railings sequently. Therefore, This study try to apply the images and formative elements from traditional pattern to the environmental graphic and street furnitures.

And as a condition, this study comes to an end by

pointing out the connection with traditional elements and its vision and improvements.

Key word

Traditionalism

Symbolism

Pattern

I. 서론

전통이란 어떤 규범이나 행위, 가치를 가지고 오래 전 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틀이며, 미래에로의 새로움을 예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의 전통적 표현의미는 과거로부터 전래되어온 자신의 것인 동시에 새로운 형태창출을 위한 기초이다.

건축을 포함한 모든 조형예술에 있어서의 전통성 표현은 그 지역이나 나라에서 이해하고 그 기본 조건 위에 지금의 사회적상황이 요구하는 시대적 감각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함에 그 표현의 원리를 알아두어야 한다. 그래서 본고는 전통성의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 그 과정과 발전단계를 건축물과 환경 장치물에 표현된 문양을 중심으로 조사, 관찰, 분석을 목적으로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문양의 유형은 고대의 토기를 중심으로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기존에 발표된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된 예를 살펴보고, 문양의 형태를 활용 가능한 분야는 무제한 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담장, 옹벽등 건축 분야를 비롯하여 택시 승강장, 문화재 안내판, 공중전화박스, 쓰레기통, 버스정류소 안내판, 식수대, 벤취, 우체통, 화분대, 가로등, 도시환경그래픽과 환경장치물에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전통문양에 관한 고찰

1). 문양의 상징성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동물과 식물, 자연현상은 물론이며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대자연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물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징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데서 예술과 종교가 탄생하는 근원이 된다고 보고 있다. 예술은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인 상징화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예술의 가장 초보적인 형식은 장식으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미적 표현의 삼요소는 형태, 색조, 그리고 문양이라고 한다.¹⁾ 조형미술의 근본이 되어 온 이러한 세가지 미적 요소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양이 조형미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문양은 종교적 상징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쓰이는 평범한 대상물에 이르기까지 조형의 필연적인 요소가 되어 왔다. 지금도 그렇지만 장인이 만들어 내는 모든 것이 창조적이거나 미적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천한 장인일지라도 일단 도구를 들면 작업대상에게 그것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부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마련이다. 기능적인 것 외에도 보기에 즐겁도록 하기 위해 표면에 어떠한 형식의 수식이나 무늬를 놓아 꾸미고자 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서 장식이 시작된다.

인류가 주위의 사물에 무늬를 넣어 장식하기 시작한 요인을 학자들은 사람의 눈은 공간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어딘가 한 점에 중심을 찾아 눈을 안정을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²⁾ 지루함과 불안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물건에 무늬를 넣는다는 것이다. 장인의 손이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늬가 되풀이하여 구성되었을 때, 그 단위를 우리는 문양이라 말한다. 문양을 통하여 토기류에 심겨진 다양한 문양이나 이형토기의 독특한 형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고대토기에서의 나타나는 문양의 유형을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³⁾

2). 문양의 유형

(1) 토기의 문양

토기의 문양은 대별하면 토기제작 시에 기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문되는 타날문과 의식적으로 심누하는 기하학문, 그리고 토기표면에 의장적인 그림을 선각하는 회화문으로 나눌 수 있다. 김해식 토기를 비롯하여 가야토기인 고베류, 호형토기류, 용형토기류, 중형토기류 등에 나타나는 형태적 특징과 문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타날문은 용형토기와 호형토기와 같이 비교적 기형이 대형으로 된 토기의 기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문되는 것이다. 이들 대형토기를 제작할 때 기신을 손으로 빚고 타봉으로 기벽을 두드리며 기형을 형성하는데 이때 타날문(타형문)이 이루어진다. 타봉은 시문구의 하나로 그 타봉에 조각된 문양에 의하여 집단선문, 격자문, 사격자문, 포목문, 승석문 등이 시문된다. 이들 타날문은 고식시문기법으로 선사시대 김해식 토기의 제작에 사용되어 성행하고 고분시대의 신라와 가야토기 그리고 백제토기 등에 계승되고 있다.

기하학문은 토기를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의식적으로 토기 표면에 시문하는 것이다. 신라와 가야토기의 경질계적인 도질토기에는 이들 기하학문이 시문되고 있다. 기하학문은 토기문양 중 그 숫자가 가장 많고 신라토기와 가야토기의 주된 문양을 이루고 있다. 이들 기하학문을 시문하는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심원문, 반원권문 등은 콤파스를 돌려 시문하였고 이것이 인화문토기에 이르러서는 압이방법을 취하고 있다. 둘째, 삼각내사선입누, 격자문, 사격자문, 거치문, 전공문, 세선문 등은 대체로 토기표면에 선각으로 시문한 기법을 취한 것이다. 셋째, 토기의 기신, 대각, 개부 등에 대문을 돌리는 예가 많은 음각선대문, 돌대문, 파상대문 등은 녹로에 걸쳐 회전시켜 시문하는 발달된 기법을 취한 것이다. 넷째, 이들 기본적인 문양을 반

1) 임영수, 한국 문양사, 미진사, 1983

2) 임영배, 신태양, 건축이론, 도서출판 국제, 1994

3) 오근재, 한국 문양의 전개, 미진사, 1990

복하여 연속문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2종 이상의 문양을 교대로 배열하기도 하고 수종의 문양을 안배하기도 하여 다종다양한 토기문양을 보인다.

각화문은 토기표면에 의장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나 거북, 새, 말, 사슴, 호랑이, 돼지, 물고기 등의 동물을 선각한 문양으로 토우장식토기와 더불어 토속신앙과 관계되는 주술적인 성격을 지닌다.

투각문은 고상식 가형토기의 받침기둥과 유사한 형태인 고배나 기대의 대각, 즉 굽에는 투각문양이 보편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투각문양기법에 나타나는 문양은 방형, 장방형, 삼각형, 원형이 주종을 이루면서 반원형, 십자형, 아령형, 화염형과 같은 투창등이 간혹 보인다. 투각문양은 각부의 단수(1단~5단)와 투창의 배열(직렬, 교렬) 상태에 따라 다종다양한 형태가 있다. 방형 투각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고 대축의 크기나 길이등에 의해 투창의 형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삼각형 투각은 안쪽으로 내향하는 선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삼각형이 투각된 것은 가야시대의 기대에서만 나타나고 신라시대의 기대에서는 사각형문 투각되어 나타난다.

손띠문양은 성형시 기물의 내부에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밖에서 물가죽으로 동그랗게 말아눌러서 생기는 횡주열선의 음각문이다. 손띠문양이 거의 모든 기대에 나타나며 크기와 길이에 따라서 손띠의 수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음각문양은 가장다양하고 다채로운 문양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파상문을 주종으로 사격자문이 자주 보이고 그외 거치문, 사선문, 원문, 점선문, 삼각문 등이 간혹 보이고 있다. 파상문의 경우는 단선으로 그려진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톱날같은 다치구로 굽어서 여러 줄로 나란히 나타난다. 파상문은 가야, 고신라시대 각종 토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대표적인 문양 중의 하나이다.

부착문양은 대부분이 넓적한 점토띠를 붙인 경우로 간혹

툽니바퀴형, 즉 거치문이나 점토띠를 부착한 형으로 나타난다. 점토대모양의 부착장식에 원형이나 단주대의 간단한 문양과 점토대를 길게 붙여 장식해 준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부착문양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문양을 하면서 거북이, 새모양의 장식을 붙인 것이다. 부착문양의 경우 신라식 기대보다 가야식 기대에 많이 이용된 형태이다.

인각문양은 음각문양과 더불어 다양한 문양이 나타나고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문양이다. 인각의 경우는 주로 원문등이 부착문양 위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2) 토기의 형태

이상의 문양 외에도 형태상 문양으로 취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형토기이다.

고대토기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각종 형태의 이형토기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형토기라 함은 인물, 동물, 물체 등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서 제작의 목적이 그러한 형태 묘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는 일군의 특수한 토기를 말한다. 이형토기는 넓은 의미에서 토우라 칭하기도 하며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인물형 토기, 동물형 토기, 물체형 토기로 구분한다. 토우의 발생시기는 신석기시대부터라고 하나 본격적인 시작은 A.D 2세기경 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량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A.D 3세기경부터인데 A.D 4~6세기의 전성기를 거쳐 6세기 말경에는 생산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이형토기의 출토지역은 합천, 고령, 함안, 진주, 창령, 대구, 현풍 등 주로 낙동강 서안의 가야지역이 많고 소수 경주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것으로는 서울 암사동의 동물토우,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의 토제인면이 있고 원삼국시대의 것으로는 김해 부원동의 동물토우, 웅천패총의 압형토기가 있다.

가야와 신라시대에 제작된 각종 이형토기는 회청색 경질 토기로 대부분 고분시대의 부장용 명기로서 민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기 시작하여 실생활용기라기보다는 동물형이나 물체형을 띤 의식적, 주술적 성격을 지닌다.

이들 이형토기, 압형토기를 비롯한 동물형토기와 가형토기를 비롯한 물체형토기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형토기(압형토기)는 우리의 민속신앙과 관련이 많다. 그 중에서 솟대는 보통 동네입구 또는 마을의 경계에 긴 장대 위에 나무로 만든 새를 올려 놓은 것인데 부락의 수호신으로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조형토기는 일종의 신기나 신상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기 내부가 비어 있고 등과 고리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볼 때 술이나 성수 등을 담은 용기적인 기능도 하였을 것이다.

토제용기 중에는 마형토기가 많은데 이것은 신화적인 말승배사상에서 기인된 듯하다. 고대에 말과 태양은 동일시되었는데 이러한 신앙형태는 선사시대의 지중해민족이나 스칸디나비아, 시베리아에서도 발견된다. 신라 천마칭의 천마도와 기마인물도, 고구려 무용총의 기마인물도, 신라의 시조설화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말은 매우 신성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말을 위시한 몇몇 동물은 제의에 공물되는 하나의 표상물로 나타나는데, 말이나 기마인물로 표현된 마형토기는 신의 표상물로서 타고 다니는 신물이자 여계를 오가는 사자의 구실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형토기의 상징은 사후세계의 승가물로서 함께 부장되는 종교적, 주술적 의기로서의 성격을 짙게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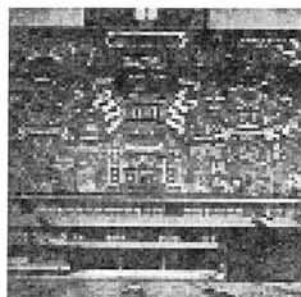
이상의 이형토기에는 원점문, 사격자문, 삼각문, 거치문, 파상문 등과 같은 기하학적 문양이 반복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대상물을 충실히 표현코자 하는 의도이거나 빈 공간에 무력감을 제거시켜 종교적, 심리적 충족을 위한 발로로 보인다.

2. 문양의 활용사례

건축물을 살펴보면 건축을 장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의하여 문양은 건축의 요소들, 즉 지붕, 벽, 바닥, 담 등에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문양의 현대건축에서의 적용 유형은 크게 첫째, 건축의 형태 모티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건축물의 평면 모티브로 사용하는 경우, 셋째, 벽면이나 바닥, 천장, 난간, 물꼬, 담 등 건축물의 개개요소에 장식 모티브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 적용 가능성과 형태는 다양각색으로 나타나며, 사실 이것은 문양과 장식의 문제라기 보다는 상징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여러 가지 적용 유형중 장식의 모티브로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벽의 모양

멕시코대학 중앙 도서관의 1,2층분에 해당하는 외벽을 메운 벽화는 멕시코 고대까지 거슬러 오르는 역사를 모티브로 하는 모자이크화이다. 현대건축물에서도 장식과 문양이 향토성 계승의 방법으로 여전히 유용함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1). 멕시코대학 중앙도서관 ⁴⁾



그림 2. 기푸다케 기요노리의 이즈모 대서관 ⁵⁾

기꾸다께 기요노리의 출운 대사청은 출운대사의 사모소 및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로서 PC 콘크리트 계단실 벽면에 어골문이 규칙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은 PC콘크리트면을 그대로 노출이 생겨나는 무미건조한 무게감을 경감 시켜주는 것으로 보인다.

2). 바닥의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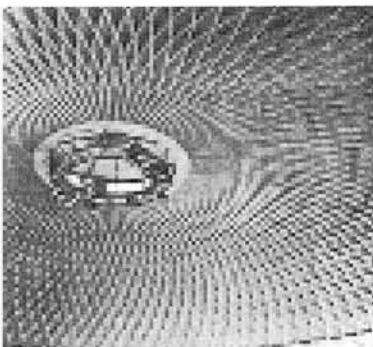
바닥에서 문양은 테크면에 시문되어 방향성을 제공하고 공간의 지루함을 매우게 된다. 이소자키 아라다의 쓰꾸바센타 빌딩의 2층 레벨의 보행자데크에는 격자문을 사용하여 넓은 공간의 지루함을 매우고 있다.



(그림 3) 이소자키 아라다의 쓰꾸바센타 빌딩⁴⁾

3). 천장의 문양

천장의 문양은 구조적인 근거를 가질 때 가장 건축적 문양이 된다. 로마 올림픽을 위해 만들어진 페어르 루이지 네르비의 스포츠궁은 반구형 돔지경이 100에 이른다. 내부 공간에 기둥을 없애기 위해 돔의 하부에는 사격자문을 고면에 적용시킨 사격자보가 사용되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다.



(그림 4)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의 스포츠궁⁵⁾

4). 난간의 문양

안토니오 가우디의 콜로니아 구엘공원에는 산허리를 따라 등고선에 맞춘 꾸불꾸불한 벤치가 연결되어 있다. 이 그리스 광장의 벤치 겸 난간에는 파쇄타일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을 나타내어 장식하고 있다.



(그림 5) 안토니오 가우디의 콜로니아 구엘공원⁶⁾

- 4) 신건축, 건축 20세기, 1. 신건축사, 1991
- 5) 신건축, 건축 20세기, 2. 신건축사, 1991
- 6) 신건축, 건축 20세기, 2. 신건축사, 1991
- 7) 신건축, 건축 20세기, 1. 신건축사, 1991
- 8) 신건축, 건축 20세기, 2. 신건축사, 1991

3. 문양의 적용

이상에서 전통문양의 현대적 적용을 건축물의 벽면, 천장, 바닥 등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본 장에서는 위의 공간과 같은 한정요소와는 다르게 환경 장식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여러가지 환경 장식요소들은 단조로운 공간에 흥미를 불러 넣기도 하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끌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 중 특히 활용도가 높은 것은 환경 슈퍼그래픽(Super graphic), 환경조각, 가로장치물(Street furniture)에 대해서 적용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환경 슈퍼그래픽

환경그래픽은 건물 벽면 전체나 건물군 전체를 하나의 화폭으로 생각하고 색채디자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슈퍼그래픽을 사용하면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먼 곳에서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진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벽면 처리에 효과적이다. 이때 복잡한 형태의 슈퍼그래픽보다는 기하학적인 도형의 반복이 더욱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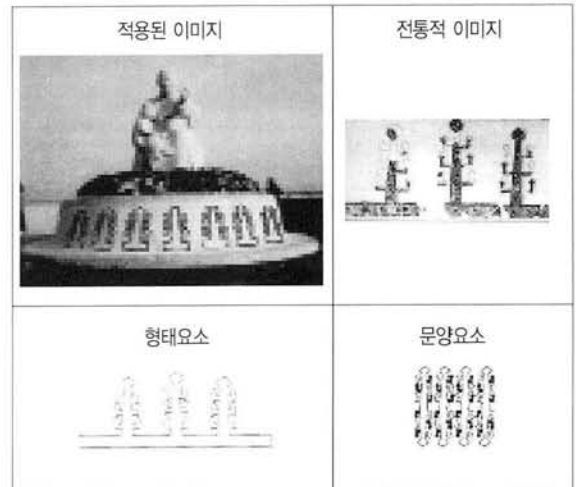
(그림) 6⁹⁾



(그림) 7¹⁰⁾

2). 환경조각

환경조각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공간의 흥미를 높이고 공간의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드는 조각을 말한다. 환경조각으로는 상징탑, 기념탑, 놀이조각등 전체 공간의 한 구성요소로서 존재하는 조각 혹은 구조물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조각은 단순히 보기 위한 조각이 아니며 공간의 이용자들이 보고, 만지고, 생각하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공간 내의 인간행위를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의 일부분이다.



(그림) 8¹¹⁾



(그림) 9¹²⁾



(그림) 10 ¹³⁾

3). 가로장치물

현대 도시의 가로에는 많은 옥외 시설물들이 있다. 안내판, 간판, 가로등, 휴지통, 벤치 등의 가로장치물은 기능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가로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시각적, 공간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크기는 작지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로 장치물이다. 소위 C. I. P 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요즘 거리의 가로장치물에 전통 문양의 형태와 패턴을 활용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¹⁴⁾



(그림) 12 ¹⁵⁾



(그림) 13 ¹⁶⁾



(그림 14) 17



(그림 16) 18

91~19) 박영주, 전통자료문양집, 미진사, 1966



(그림 15) 19

III. 결론

전통이란 지나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창조 계승되어온 형식, 그 자체, 혹은 그것을 낳고 지탱해 온 디자인 방법과 이데올로기를 가르킨다. 지나간 모든 것이 전통은 아니며, 현재의 창조에 있어서 존재, 검증의 의의가 있으며 장래에 대해서도 길게 계승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한국사회는 두 가지 큰 변화를 겪는데 이는 진정 서구화되어 가는 경향과 역사 유적에 대한 관심과 확산이 문화, 예술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이 두 경향이 공존하게 됨에 따라 전통논의는 이제 더 이상의 반대되는 현상이 아닌 동일한 테두리 안에서 보완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또 현대는 꾸밈과 장식성이 없는 간결성, 명쾌성, 균등성, 순수성, 질서성, 합리성 등으로 표현되던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 탈 근대화의 역사와 중요성을 재 인식하고 과거로부터의 복귀와 디자인에서의 의미추구의 다양화된 시대

로 접어들면서 이 두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서구적 기준에 의해 부정되고 왜곡되었던 전통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것의 맥락을 회복하면서 민족 내지 지역적 특이성을 지닌 자기회복의 노력을 추구하여 적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한국전통성의 현대적 표현방법은 전통요소들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내적처리과정을 거쳐 재 창조된 즉 부호화된 기호로 표현 해야하며, 이 점이 전통성에 입각한 현대적 적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전통성에 입각한 한국 전통문양의 현대적 적용을 건축물과 환경 장치물들을 중심으로 그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확실한 방법론의 제시라기보다는 미흡하나마 그 가능성의 시작에 불과하고, 추후에 이에 대해서 건축 분야를 비롯하여 제품, 그래픽, 인테리어 분야까지도 적용, 확대되어 더욱더 적극적인 연구와 작품발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식 수준도 계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국립현대미술관, 도시환경의 아름다운 서울. 1991
- 2). 국립진주박물관, 눈으로 보는 고대의 소리. 1992
- 3).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양식, 장치사. 1991
- 4). 김원룡, 한국의 미술, 열화당. 1985
- 5).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열화당, 1984
- 6). 박영주, 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1986
- 7). 부산공업대학교 연구소, 가야문당 디자인 개발연구, 에이블, 1995
- 8). 서나영, "한국적 이미지에 의한 장식미술 디자인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이대산미대학원 석차학위논문. 1993
- 9). 신건축, 건축 20C Part I, II, 신격축사. 1991
- 10). 오근재, 한국문양의 전개, 미진사. 1983
- 11). 임영주, 한국문양사, 미진사. 1983
- 12). 이호진, 김들선, 건축조형사고론, 산업도서출판공사. 1997
- 13). 전통과 현대, 옛것과 새것과의 관계, plus 제 125호, 1997
- 14). 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삼성인쇄. 1984
- 15). 한병삼외, 한국의 미(5), 토기, 중앙일보사. 1986
- 16). 황오근, 한국의 문양, 열화당. 1991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